

일본 7월 수출 2.6% 급감

2021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일본의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며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출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로이터가 실시한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2.1% 감소를 예상했지만 실제 감소폭은 이를 웃돌았다. 수입은 7.5% 줄어 예상치였던 10.4% 감소보다는 낙폭이 작았다.

일본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7월에 10.1% 감소해 6월의 11.4% 감소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하락세를 이어갔다. 중국 본토로의 수출도 3.5% 줄었으나, 홍콩으로의 수출은 17.7% 급증했다.

무역 지표 부진은 일본 경제가 2분기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한 직후 발표됐다. 일본 GDP는 전 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순수출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손포 인스티튜트 플러스의 고이케 마사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관세 영향의 규모에 따라 일본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직원 의료보험 부담 10%까지 증가”

암 치료·고가 약품 수요 급증, 대기업 비용 분담 계획

그동안 의료비 인상을 부담해온 대기업들이 내년부터는 직원들과 부담을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최대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미 물가 상승으로 압박받는 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후한 복지 혜택을 유지해온 기업들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즈니스 그룹 온 헬스의 엘렌 켈세이 CEO는 “올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벽치고 냉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단체가 1,160만 명을 고용하는 121개 대형 고용주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기업의 의료비 지출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내년에는 혜택 축소 없이도 중앙값 기준 9% 상승이 예상된다. 인력관리 컨설팅회사 메르서(Mercer)는 5.8%, 국제직원복지기금재단(IFEBP)은 10% 인상을 전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오바마케어와 민간 보험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원인은 건강검진과 치료 수요 확대, 약값 인상 등이 꼽힌다. 특히 암 치료는 4년 연속 고용주 의료비 지출의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고가의 생물학적 의약품, 항염증제, 비만 치료제(GLP-1) 사용 증가도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24년 기준 기업의 약제비 지출은 전체 의료비의 24%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는 11~12%의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

메르서의 조사에서는 올해 비용을 직원에게 전가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51%로, 지난해 44%보다 많았다. 메르서 헬스·복지 리서치 디렉터 베스 엄랜드는 “지난 몇 년간은 기업들이 비용 전가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고비용 추세가 3년째 이어지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기업들은 내년부터 직원들과 의료비 인상의 부담을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shutterstock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을 직원에게 넘기는 것을 넘어, 건강관리 서비스 공급업체에 더 강력한 책임을 묻거나 대체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 헬스 조사에 따르면 대형 고용주의 4분의 1은 내년에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 플랜을 도입할 계획이며, 36%는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하이 퍼포먼스 네트워크’나 ‘독점 공급자 조직(EPO)’ 같은 제도가 포함된다. 이들 플랜은 이용 가능한 병원·의사의 범위가 좁지만, 모바일 앱을 통한 비용·품질 비교가 가능하고 주치의의 의무 지정이 없는 점에서 과거 HMO와 차이를 보인다.

한편 공화당의 세금·지출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직접적으로 고용주 제공 보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3분의 2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켈세이 CEO는 “정부 지원 축소가 이뤄질 경우 업계 일부는 상업 보험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해 손실을 메우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웰컴치과그룹

B B B

Best Price Best Quality Best Service

만을 고집하는 웰컴치과

Best

가격이면 가격! 품질이면 품질!
실력이면 실력! 모두 자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웰컴치과는 친절합니다.
명문대 출신 실력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히 치료해 드립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PPO 및 각종보험 환영

- 메디칼
- 앤섬블루크로스
- 휴메나 골드플러스
- 유나이드 헬스케어 (AARP Medicare Advantage)
- 클레버케어
- astiva health
- PPO Insurance

웰컴치과그룹

애나하임

한인타운

714.552.5373

213.381.2827

1201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2500 W. 8th St. #106
LA, CA 90057